

## PA-079

## 남부 지역에서 벼 극조기 재배시 출수기 및 수량변화

오성환<sup>1\*</sup>, 서중호<sup>1</sup>, 황정동<sup>1</sup>Seong Hwan Oh<sup>1\*</sup>, Jong Ho Seo<sup>1</sup>, Chung Dong Hwang<sup>1</sup><sup>1</sup>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sup>1</sup>Dep. of Southern Area Crop Science, NICS, Miryang 50424, Korea

## [서론]

최근 평야지 조기재배를 통해 8월 중하순~9월 상순에 수확하여 추석 전 햅쌀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 수요 또한 증가 추세임. 그러나 벼 감산정책에 따라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벼 재배기술 개발 및 논에서 소득작물을 이용한 이모작 모델 보급 확산이 필요함. 따라서 본 시험은 극조기 벼를 재배후 8월말 이후에 소득작물과 연계가 가능한 작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8월 하순 전에 수확가능한 극조기 재배용 품종선발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20년 경남 밀양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의 논 시험포장에서 실시되었다. 공시품종은 백일미, 주남조생 등 조생종, 단기성 14품종을 무가온 온실을 이용하여 30일간 육묘하였고, 이앙시기는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4시기에 재식거리 30×12cm, 재식본수는 1주 5본으로 이앙하였다. 시비량은 질소-인산-칼리를 성분량으로 10a당 각각 9, 4.5, 5.7kg을 시비하였다. 기타 생육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조사기준에 준해 조사하였다.

## [결과 및 고찰]

극조기 재배시 4월 21일 이앙까지는 대부분 품종이 이앙 후 적고현상이 심하였으나 주남조생, 해당쌀은 그 피해가 다른 품종들에 비해 경미하였다. 그러나 적고현상이 심했던 품종들도 대부분 5월 중순 이후 회복되었다. 이앙부터 출수기까지 소요 적산온도는 이앙시기가 늦어질수록 작아졌으나 벼의 적정 생육온도인 15°C 이상의 적산온도는 이앙시기별로 차이가 대체로 적어지는 경향이었음. 따라서 이앙시기를 앞당겨도 생육적온 이하의 온도는 출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극조기 재배시 출수가 빨랐던 품종은 백일미, 주남조생, 진옥, 중모1032 등으로 이들 품종은 5월 전에만 이앙해도 7월 10일 전후로 출수되어 8월 하순에 수확이 가능하였고 후작물과의 작기연결성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쌀수량은 출수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였는데 7월 10일 이전에 출수한 품종들보다 7월 20일 경까지 출수한 품종들이 약 11% 증가하였다. 7월 10일 까지 출수한 품종들은 쌀수량은 진옥>주남조생>백일미>중모1032의 순이었다.

##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5126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82-55-350-1131, E-mail. osh0721@korea.kr